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2024. 3. 22.

성동구의회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2024. 3. 22.(금) 14:00
▲ 장 소: 성동구의회 제1회의실
▲ 위 원: 7명
▲ 안 건: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의 건

[의정팀장]

지금부터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OOO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바쁘신데 오늘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의결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으시고 평가를 공무 입장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위해서 먼저 출장계획서에 대해서 심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의 건

[위원장]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출장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정팀장]

출장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6박 8일 간 의원 11명과 직원 5명 총 16명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출장기간 헝가리 센첸드레 시청을 비롯해 도시개발, 문화관광, 복지 관련 기관 방문 및 현장시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타 국가의 우수 사업 사례 등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사업 발굴과 국제적 감각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해서 논의 및 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나 또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장계획서 뒷장을 보니까 잘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잠깐 벌기 위해서 출장 효과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장 효과, 타 국가의 우수한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사업과의 연계 사항을 발굴한다.

둘째, 공무국외출장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 활용하여 조례 제정, 개정, 예산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및 행정사무감사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선진정책과 모범적인 사회 제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국제적 감각을 함양한다.

이렇게 출장 효과로 적어놓으셨네요.

이번 출장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여러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OO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시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그때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취소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어떤 결단을 하셨고 올해도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어떤 문물을 놉이고 의회 발전에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작년에 아마 2023년 공무국외출장 심의가 있어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마 5박 7일 동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출장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아마 GTX-B노선 환기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OOO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지난번 장소에서 바뀐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동남아시아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개발이 더디고, 이번에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데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같은데 각종 문화나 이런 선진화된 게 있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게 많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여비 기준에 지금 초과되는가요, 아니면 여비 한도 내 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여비 한도 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당 한 350만 원 정도해서 5,500만원.

[○○○위원]

여비 안에서?

[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해서 시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1년에 공무국외출장이 몇 번 잡혀 있죠?

[의회사무국장]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전에는 2019년도에 시찰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1년에 한 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14분 다 가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심 의원님, 고용필 의원님, 이현숙 의원님께서 일정이 중복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0월에 의결했던 공무국외출장은 연기가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취소가 되고 예산이 불용처리해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작년 예산은 불용처리되고 올해 예산으로 하신 거군요.

[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여기 기관 섭외는 누가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OOOOO이라고, 거기가 OO구, OO구 등 많이 갔던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거기서 기관 섭외도 해 주고 통역 등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편리할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통역, 가이드를 다 맡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저희 구 직원이나 의원들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는 제3의 업체입니다.

〔 ○○○위원 〕

중요한 게 이제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 구에 접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인데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라옵니까?

〔 의정팀장 〕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규정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위원장님,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여기 심사표에 보면 두 번째에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여기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여기 체코에 가신 적 있나요?

〔 의회사무국장 〕

없습니다.

〔 위원장 〕

이게 공식적인 심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무국외출장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서 주민들의 세금, 소위 말하면 세금을 가지고 관광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런 비난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면 대외적인 명분이 이렇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벤치마킹해서 정책 효율 효과를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 효과와 의정활동의 활성화, 굉장히 좋은 목적이고 당연히 출장 가셔야죠.

당연히 배우고 해야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우려먹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배우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질문이 들겠죠.

공교롭게도 일반인들이 관광으로 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관광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공무출장스럽게 내용을 알차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방문이 5곳이 있고 이제 현장시찰이 5곳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단지 관광성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놨고, 의원님들도 팀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을 다 여쭤보시니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프라하나 이런 곳이 우리가 가기 조금 힘든 곳이긴 해요.

금액적으로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 갖고 못 갈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사실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건 염려스러운데 다행히 업체가 수십 번 이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얼마 전에 외유성 출장, TV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데 우리 성동구는 또 앞서가는 도시긴 하니까 잘하시긴 하시겠지만 이 돈 갖고 갈 수 있나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위원]

일정은 확정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 현지 가면 일정이 바뀔 수 있지만 이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빡빡한 일정인 것 같아요.

[○○○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짠 것이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이틀이 무박이잖아요.

6박8일, 경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이 가서 고생한 만큼 많이 얻어오시겠죠.

〔 ○○○위원 〕

짧은 기간에 3개국을 다녀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오실지 걱정이 되고요.

〔 의회사무국장 〕

사실 잘 아시다시피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한 나라였어요.

다 뭉쳐있는 나라예요.

차로 서너 시간이면 돌 수 있어서 동선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이신 OOO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아마 맞춰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지자체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아마 성동구가 앞으로 문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토대로 지금 이렇게 문화적 발전을 가져간 유럽 문화를 좀 답습하시고 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서에다가 잘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걸 토대로 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또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안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더라가 아니라 저희 구에서 어떤 교육을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활용 내용까지 주시면 저희 학교에서도 그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나 자유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표 작성)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는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산회)